

#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 정책 수립 의견 제시, 아동참여단 구성 4개년 추진계획 수립 용역 추진

익산시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아동친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최근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아동참여단을 공개 모집했다.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30명으로 참여단은 구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대식을 갖고 의회

방과 임시회 등 의회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참여단 임기는 내년 2월까지 7개월이며 아동 관련 사업을 직접 발굴하거나 기획,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홍보활동 등에 참여한다.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도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용역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점과제 발굴, 4개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아동인권 전문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성해 시민참여토론회를 개최

하고 여기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분석해 4개년 추진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앞서 익산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해왔다.

지난 5월 박철웅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유관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등 13명이 참여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기본방향과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

계도 구축했다.

협약에는 익산경찰서와 교육지원청, 소방서, 굿네이버스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 월드비전 전북지역본부 등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정보 공유,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힘을 모으겠다"며 "이를 토대로 아동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나눔과 사랑의 이웃사랑 실천

### 군산공설시장 청년물, 상암마켓행사 진행

군산공설시장 청년물에서 기부와 나눔을 위한 상암마켓 행사를 진행했다.

군산시는 지난 16일, 17일 이틀간 군산공설시장 청년물과 함께하는 상암마켓 행사를 청년물사업단과 연계해 군산공설시장 청년물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군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30여명의 마케터들의 다양한 상품 판매 (핸드메이드 제품, 의류, 장난감, 생활용품, 식품 등)와 체험 및 이벤트 행사와 더불어 수익금 일부를 기증해 따뜻한 나눔의 장이 됐다.

상암마켓 팀 일원은 "기부와 나눔은 서로에게 행복을 일깨워주고 누군가의 삶에 작은 희망을 심어주는 것으로 공설시장 활성화



에 상암마켓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마켓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우 과장은 "상암마켓이 나눔이 새롭고 독특한 제품들로 방문객의 구매욕구와 함께 보는 즐거움까지 더하고 있어 많은 고객들의 재방문에 따른 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이 기대되며 기부 해주신 수익금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500만 관광도시 익산 조성' 협업체계 구축

### 관광지개발·인프라 구축 등 전략적 마케팅 추진

익산시는 500만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부서들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략적 관광마케팅 추진에 나섰다.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정현을 시장 주재로 역사문화재과, 농촌활력과, 도시재생과, 정책개발담당관, 보석박물관, 익산문화관광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사문화융성도시 익산' 비전과 '500만 관광도시 조성' 전략목표로 관광정책, 관광지개발 및 인프라 구축, 관광객 유치에 대한 전략적 마케팅 3분야의 추진전

략을 논의했다.

첫 번째 관광정책 방안으로 관광컨트롤타워와 부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익산 관광브랜드 개발 및 확립을 통한 명확한 관광정책체성을 바탕으로 2022년 익산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어 관광지 개발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부서별로 관광수용태세를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지 개발에 관한 장기정책 수립, 문화예술의 거리의 앵커시설 콘텐츠 보강을 통한 활성화, 관광지개발 전

략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으로 농촌체험관광 및 여행상품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이벤트 및 홍보 활성화, 산업관광 활성화로 평일 관광객 유치, 제휴마케팅 활성화, 마이스 특새시장 공략, DMO를 설립해 지역주민과 연계한 여행상품 개발 등이 제안됐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관광관련 부서 협업체계를 구축한 만큼 앞으로 관광정책, 인프라구축, 전략적 마케팅 등 적극적으로 공동 협력해 2022년 익산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운영과 500만 관광도시로 익산시가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 미국흰불나방 확산 익산시 긴급방제 당부

익산시는 최근 돌발병해충인 미국흰불나방이 급격히 확산돼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긴급방제를 당부했다.

미국흰불나방 성충은 5월과 7-9월 초에 나타나며 연 2회 발생한다.

유충은 감나무와 뽕나무, 사과 등 160여 종의 나무에 기생하며 피해를 주며 주로 가로수, 과수원, 정원 등 인공적인 환경에 살고 산림지대에는 거의 피해를 주지 않는다.

최근 익산지역에서는 미국흰불나방의 피해로 가로수와 조경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과수의 수세를 쇠하게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과거에 과수농가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으며 올해도 곳곳에서는 많은 면적에서 발생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곤충들의 산란시기와 맞물려 해충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주변의 나무 가지에 거미줄로 막을 형성한 흔적이 있거나 나뭇잎이 일찍만 앙상하게 달려있는 나무는 미국흰불나방 피해가 의심되므로 전용약제로 방제를 해야 한다.

감나무, 정원수 등에 소규모로 발생하였을 경우 농약 대응으로 가정용 파리·모기약(00킬라)을 살포해 주변 유충을 쉽게 방제할 수 있다.

기술보급과 관계지는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미국흰불나방의 개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과수원, 가로수 등에 발생했을 때는 조기에 적극 방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 군산,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도시 군산시가 경기침체에 빠진 골목상권을 살리고 시민 취미교육을 위해 마련한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배달강좌 시즌2'를 시작한다.

시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군산시 평생학습센터에 공연과 작품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된 제2기 동네문화카페·배달강좌에 동네문화카페 480곳과 3464명이, 배달강좌 104개 강좌에 840명의 수강생과 청강생이 참여하는 등 총 4300여명의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경험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는 도시민의 농업활동으로 건전한 취미와 여가 정착을 통한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전문가과정 2기 교육생 30명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9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총10회에 걸쳐서 진행되며, 도시농업 및 텃밭관리 이론, 텃밭조성 실습, 현장견학 등의 내용을 8시간 동안 배우게 된다.

주민등록상 군산시 거주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농업계학교 출신자, 농업관련 자격증 소지자, 3년 이상의

영농경력자 등 농업관련분야 자격증이나 관련이 있는 지원자는 우선선발하게 된다.

교육생들은 교육기간 자치활동 등을 통한 인적네트워크 형성과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기회를 제공받고, 교육수료 후에는 도시텃밭관리 및 도시농업교육 등 도시농업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아울러 농업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도 취득하게 된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도시농업은 도시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및 가족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

게 될 것"이라며, "도시민의 농업활동을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농심함양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와 군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농촌지원과 귀농협력계(063-454-523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홈페이지 www.jjmaeil.com

## 익산시, 볏짚환원사업 신청 접수

익산시가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여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볏짚환원(지력증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볏짚환원사업은 벼를 재배한 논지 가운데 볏짚을 잘게 잘라 넣고 가을 갈이를 실시한 논가에 ha당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사업 논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며 사업비 범위 내에서 논가당 0.1ha부터 최대 3ha까지 지원한다.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지력증진)사업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논가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신청된 논지의 사업 이행 여부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볏짚환원사업은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여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할 것이다"며 "신청기간 내 신청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